

군산근대박물관 지역경제 '희망의 불씨'

지난 한해에만 관광객 100만명 육박 원도심 활력소 역할 스탬프투어·체험프로그램 등 볼거리 넘치는 마케팅 주효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전국적인 관광지 자리매김 하면서 불 꺼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총 95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 박물관으로 개관한 근대역사박물관은 2015년 전국 5대 공립박물관으로 선정됐으며 개관 6년 만인 2017년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명성을 떨쳤다.

이 같은 관람객 수 증가는 근대역사박물관에 가면 볼거리가 넘친다는 마케팅 활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전시장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어린이 및 학생들의 수학여행지·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각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요 및 판소리·사물놀이·버스킹·인형극·연극 공연 등 연 300여회 이상의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시민과 관람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볼거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소를 부여하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저녁 9시까지 개관함으로써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지 방문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박물관 방문객이 입장권 제출 시 가맹점 등록업체에서 판매금액(현금 10%, 카드 7%)을 할인받을 수 있는 BUY 가맹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로비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술 공연 등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군산시 제공>

또 5000원 이상 입장권 구매 시 금강철 새조망대에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를 실시, 지역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문객 만족도까지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중규 근대역사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차별화된 사업들은 군산의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명실상부 전국 최고

의 박물관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국 최고의 근대 문화유산을 지닌 우리시의 강점을 살려 근대역사박물관을 거점으로 관광산업화에 노력함으로써 자립도시 군산건설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신안군, 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재정비 2025년까지 45개섬 헬기장 확충·면단위 구급차 배치 등



신안군이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전 단계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재정비한다.

섬 지역 응급환자는 지역 특성상 병원 전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2020년을 '섬 지역 생존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섬 지역의 경우 응급의료센터까지의 거리, 인구 규모, 도서분포의 밀집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육지 근접형 섬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송체계 확립에 최우선을 두고 면 단위로 구급차를 배치한다.

연안 근접형 섬은 2개 지역(암태-하의) 모섬에 가능 확대형 보건지소를 건립해 기본적인 응급검사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와의 원격결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립형 섬 2곳(가거도·홍도)에는 연안 근접형 섬의 응급의료 체계에 더해 평시 헬기 이송은 물론 야간과 약천후에도 해경정을 이용한 이송체계를 구축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수단이 헬기인 점을 고려해 인구 50명 이상이 거주하는 섬 45개 섬에는 2025까지 헬기장<사진>을 확충한다.

지금까지 15개 섬에 헬기장을 마련했다. 현재 3곳의 헬기장(하의 응곡·지도 선도·중도 병풍도)은 건립 추진 중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순창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확대

한전 등 53억원 투자 은행교~순화교차로 1km 추진

순창군이 순창읍 중앙로에 이어 시가지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확대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확정 통보를 받고 올해 지중화 사업비 53억원

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순창읍 중앙로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도했으며 현재 도로 포장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오는 3월이면 전선도 모두 지하에 매립된다.

군은 중앙로가 전선 지중화로 마감해진 거리로 재탄생해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 시가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전 15억, 6개 통신사 7억, 순창군 31억 등 총 53억원을 들여 순창읍 은행교~순화교차로 1km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 3월까지 한전을 포함해 각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 말까지 실시

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7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군민들의 보행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공사가 시작되면 보행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와 상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영광군, 고품질 쌀 육성 노력 결실

영광농협RPC 연간 쌀 판매 실적 505억원 달성

영광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 해온 고품질 쌀 육성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영광군은 전남농협 26개 미국종합처리장(RPC) 중 처음으로 영광농협RPC가 연간 쌀 판매 실적 505억원을 달성하고 기념식을 가졌다.<사진>

판매 물량은 20kg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만 포대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는 영광군의 과감한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38억1200만원을 투입한 가운데

가공시설 개보수에 가장 많은 62억4300만원을 지원했다.

2016년과 2019년에는 태풍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통합RPC를 통해 품질 저하를 수배를 위해 20억원을 투입했다.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도 2억2000만원을 보조하고, 올해는 RPC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광=이준원 기자 jylee@

정읍시보건소, '한방중풍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보건소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4월3일까지 '한방 중풍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중풍 질환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이 진행된다.

또 중풍예방 생활습관, 한의학 식이법,

한의학 양생법 등의 교육과 혈액순환, 근력강화를 위한 기공체조를 주 2회 운영한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지원 사업' 강화

익산시가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소규모 농가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농산물 판매에 IT 영역을 접목했다.

익산시가 전북 지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특산품의 인터넷 판매를 지원해 농가 소득을 올린다.

시는 지난해 70여 농가를 지원해 5억 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유도했다.

시는 1월 초 오픈마켓 등 판매·홍보대행사 선정과 마치고 설 명절 기획전을 시작으로 농특산품 온라인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1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오픈마켓 입점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나 택배비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